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장신구 보유자

김영희

벽봉 김영희

벽봉 김영희는 1970년 4월, 백옥사 김재환 선생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기술을 사사하였다. 1988년 공방 예지방을 설립하고,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전국공예품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 수많은 수상을 통해 그 기술을 인정받으며 전통공예부문 신지식인, 국가지정 옥석패물가공 기능전승자로 선정되고 200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18호 옥석장(장신구)으로 지정 되었다.

동시에 남북유엔 동시 가입 기념 백옥 모란문 향합(유엔본부 한국관 소장)을 제작, 영국여왕 한국방문기념 순종황후화관 제작(영국왕실 소장), 광복 60주년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기념 궁중장신구 복제전시(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등 동시에 국내외로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하면서 국립고궁박물관, 태능

백옥모란문향합

조선왕릉박물관, 경운박물관, 인천국제공항 한국문화박물관, (재)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등과 지금까지 총 100여점 이상의 많은 유물의 복원, 복제 사업을 함께 하면서 대중에 전통장신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려 왔다.

2014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대중들에게 우리 옥석 공예 장신구의 발전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친왕 옥대

옥장(장신구)란, 여러 종류의 옥석류와 보패류를 가공하여 왕실의 기물류와 남녀장식류를 금, 은 세공하여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옥석 및 보패류로는 경옥, 연옥, 산호, 호박, 마노, 수정, 공작석, 유리제옥, 상아, 대모, 서각, 흑각, 진주, 석웅황 등이 있다.

이러한 옥석패물은 궁중에서부터 사대부 그리고 일반 서민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종류로는 노리개, 떨잠, 뒤꽂이, 비녀, 귀걸이, 가락지, 장도, 동곳, 관자, 선추, 침낭, 풍잠, 단추, 갓끈 등 다양하게 쓰였고 왕실의 장식물로는 왕과 왕비의 옥대, 어보, 옥류, 면류관, 패옥, 대수장신구 등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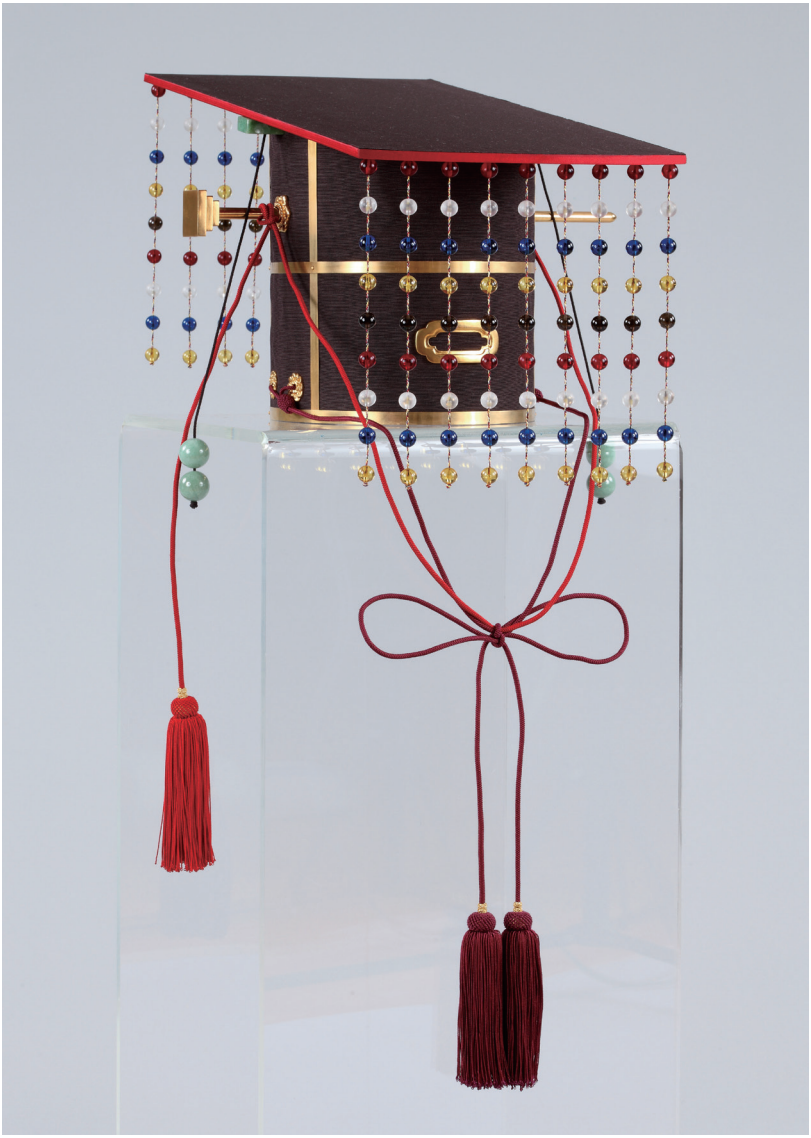
영친왕비 옥대

전통적인 제작공정은 채석, 디자인, 절단, 성형, 구멍 뚫기, 홈파기, 세부 조각, 마름질, 광택의 과정을 거친다. 벽봉왕실문화재연구소(예지방)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의 옥세공 기술을 계승하고 전수하여 우리 문화유산과 인간 문화재의 전통기술에 대한 가치를 향유하고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국전통왕실공예를 발전시키고 있다.

영왕비대수머리장신구

백옥쌍학문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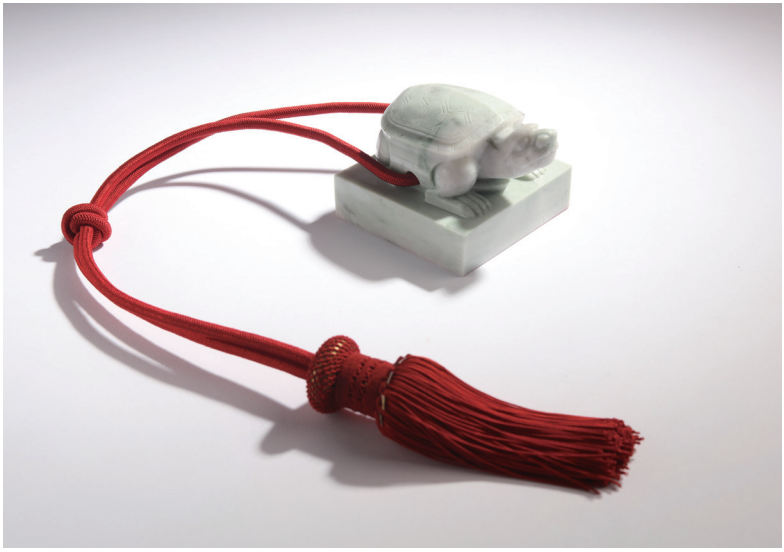
청백옥쌍봉문모자합



9류 면류관(익종)

태조존호옥책

고종 옥보



비취매화문상감목필통

영친왕비 족두리

백옥원형떨잠

백옥나비떨잠

영친왕비 대삼작노리개

전연백수정국화문잔

천연수정연화문다완

‘왕실 혼례, 장신구로 꽃피다’… 궁중기록 재현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기획전

[2017년 10월 11일 19:46:31 전자신문 12면]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위치한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은 2017년 특별기획전 ‘왕실 혼례, 장신구로 꽃피다-궁중기록의 재현’을 다음달 30일까지 개최한다.

왕실의 혼례는 한나라의 국모를 세우는 국가적인 행사로, 이 때 사용하는 장신구는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와 품격을 담아 제작했다.

왕실의 기물과 장신구를 소개하는 벽봉한국장신구 박물관은 왕비(왕세자빈)의 의복과 장신구로 왕실의 혼례를 재조명하는 ‘왕실 혼례, 장신구로 꽃피다-궁중기록의 재현’ 전시를 개최, 궁중 장신구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시는 궁중 기록 속의 혼례 장신구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옥장(장신구) 김영희의 손길로 재현한 왕비의 비녀, 머리장식, 노리개 등을 소개하며 궁중 장신구에 사용되는 문양과 천연원석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 031-949-0848)

UAE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한국문화원 전시 및 워크샵

한국대사관문화원 유럽 3개국(벨기에, 독일, 영국)전시

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아름다움 강연

전통과 현대가 만나다 이니셜 매듭팔찌 체험

전승활동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전경

박물관 상설 전시실

–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이라는 이름에는 몇가지의 다른 요소가 중첩되었다. 벽봉–한국–장신구 등?

"처음에는 벽봉장신구박물관이라고 하려고 했다. 내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왕실 장식공예품을 작업해왔으니 전통적인 부분에 한국을 대표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 박물관의 개관의 목적은…

"나 같은 기능보유자들은 후학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게 책무다. 이에 이곳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인 셈입니다. 하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은 무형이라 남는 것은 작품밖에 없다. 작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귀중한 소재나 내용에서 다시 작업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낼 필요에 따라 박물관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벽봉 김 영 희. 碧峰 金 泳 熙.

- 무형문화재 경기 18호 옥장(장신구)장
- 대한민국 옥석패물가공 기능전승자 04-3호
- 신지식인(전통공예 부문) 00-6호
- 경기 으뜸이 선정(옥석패물 부문) 04-5호
- 조달청 전통공예문화상품 우수 기능인 선정
- 궁중장신구 갤러리 '예지방' 대표
-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관장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전국공예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기능전승자 선정 심사위원 역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학과 예술사 수료
-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운영위원
- (사)아시아민속조형학회 감사 부회장
-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집행위원
-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감사
- (사)경기도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이사

- 한국전승공예 명품전(일본 동경 메구로구미술관)
- 99썸머 이벤트 한미문화사절단(미국 6개 도시 순회전시 및 시연)
- 한, 중 민족교류 특별조형전, 중국 운남성 곤명시 사회과학원 (운남 민속박물관)
- 개인전, 김영희 옥석패물장신구전 (공예문화진흥원)
- 전통공예 5인전 (조선일보미술관)
- 전통공예 4인전 (인사아트센터)
- 개인전, 브로치이야기전 인연 (궁중장신구갤러리)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5주년 기념 왕릉전시
- 한국대사관문화원 유럽 3개국(벨기에, 독일, 영국)전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전시
- 기획전시 '선비, 美와 禮를 말하다' 展
- 특별기획전 '왕실혼례, 장신구로 꽃피다.–궁중기록의 재현–

- 남북유엔 동시 가입기념 백옥모란문 향합 제작
  (미국 유엔본부 한국관 소장)
- 청와대 신축 개관기념 연화문 벼루 제작 전시 및 소장
-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북한복식전 노리개 장신구 제작 복원 전시 및 소장
- 캐나다 오타와 한국문화원 노리개 장신구 제작 전시 및 소장
- 국립고궁박물관 편경유소 제작 (복제전시소장) 후원 : 문화재청
- 인천국제공항 '한국문화박물관' 궁중장신구 복제 전시소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 장신구유물 복제제작) 개관전시소장
-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 개관기념 경운박물관, 영왕, 영왕비 장신구 전시 소장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한국방문기념 순종황후 화관 복제제작
  (영국 황실 소장)
- 8.15 광복 60주년 국립고궁박물원 개관기념 궁중장신구 복제 전시 및 소장
- 국립고궁박물관 영왕, 영왕비 장신구 복원, 복제 전시소장
- 국립고궁박물관 구장복 (면류관, 옥대, 옥규, 패옥) 복원 전시소장 (문화재청사업)
- 종묘 태조임금 옥책 복원, 복제 전시소장 (문화재보호재단)
- 태릉 조선왕릉 전시관 어보(금보) 복제 전시소장 (문화재청)
- 아모레퍼시픽박물관 전시 및 소장
-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요대 복원, 복제 전시소장 (문화재청)

-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 수상 (한국관광공사)

- 인천시 공예품 경진대회 대상
- 제2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특별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
- 99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대상
- 제30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은상
- 제30회 전국공예품대전 산업자원부장관상
- 서울시 관광기념품공모전 장려상 (서울시장상)
- 제2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문화체육부장관 감사장 수상
-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감사장

- 한류 영화 “황진이” 장신구 제작 협찬
- 한류 영화 “쌍화점” 장신구 제작 협찬
- 한류 KBS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장신구 제작 협찬

영화 황진이 포스터

영화 쌍화점 포스터

벽봉 김영희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을 무사히 끝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정교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며 또한 옥석패물가공기능전승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유연하고 다양한 소통방식을 제안한다.

그 예가 되는 것이 바로 파주시 헤이리마을에 있는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옛 왕실의 복원, 복제품들과 실제 유물들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접목된 작품, 또 아주 현대적인 작품들까지 아주 다양하며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고 그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정보 :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홈페이지

이 브로슈어는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